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개선 연구

Improving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이근호, 이병천, 가은아, 이주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eunho Lee(khlee@kice.re.kr), Byeongcheon Lee(bclee@kice.re.kr),
Euna Ka(kana@kice.re.kr), Jooyoun Lee(youn5504@kice.re.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와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2007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문제점을 문헌 연구와 현장 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 사례 연구의 시사점 도출의 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준거에 기초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하고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실제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교육부 관계자, 학교 관리자, 현장 교사 등을 면담하여 문헌과 인터넷 탐색 등에 기반을 둔 사전 조사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비단 현재의 시스템이나 현황에 대한 표피적인 조사를 넘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 등과 같은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출된 시사점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 쌍방향과 개방형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등이 제안되었다.

■ 중심어 : | 국가교육과정 | 모니터링 | 교육과정 적용 | 국제 비교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in terms of actual problems and challenges faced by school teachers, and drew criteria for analyzing overseas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criteria, we investigated the Australian and Singaporean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We especially carried out interviews with school teachers, principals, officials in Ministry of Education, and tried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beyond superficial investigation of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four suggestions such as integrated way of monitoring, multi-way open system, and substantial approach into monitoring operation which will lead into meeting with the purpose of the monitoring system of national curriculum.

■ keyword : | National Curriculum | Monitoring | Curriculum Implementation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 서론

학교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그 실행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실행 간의 차이가 벌어질 경우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문서상의 변화에 한정되며,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 교육과정은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 개발된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적용과 지원, 면밀한 질 관리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이후의 적용 및 질 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등한시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2]. 또한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의 권한이 점차 교육 운영의 당사자인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종래의 국가 주도적 관리 체제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3]. 특히 교육과정 개정이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반성이 아닌 순간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그 실행 과정에서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차기 개정의 근거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비판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또한 2015년도가 새 교육과정이 고시된 해라는 것을 주목할 때, 향후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 실행 및 관리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적용과 질 관리 중에서 특히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의 위상이 높은 반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모니터링이나 개선은 일선 학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개정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축박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교육과정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이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 등이 모니터링 체제 개선의 시급성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국제 비교 연구는 국가 간 문화와 현재의 정책 방향 비교를 통해 미래 정책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쟁점 사안이나 야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및 질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풍토를 형성하고 있는 호주와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각국의 교육 체제나 교육과정 모니터링 운영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준거로 대상국의 국가 적용체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에 따라 본 연구는 새 교육과정의 고시로부터 학교 현장 실천에 이르기까지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국가 교육과정의 성공적 적용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모니터링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필요성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고 안정적으로 실행되기까지의 모니터링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는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6].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부

터 시·도교육청을 거쳐 학교에서 충실하게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의 질 관리, 컨설팅, 장학, 교육과정 평가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는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실행과 함께 향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7]. 따라서 국가에서 개발·연구한 교육과정의 보급, 교과용 도서의 개발·보급, 교원 양성·연수, 교육시설 설비 확보 등의 제반 조건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의 교육 현장 적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론 차원을 포함하여 학교급별 및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방법, 및 평가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교육과정 모니터링이 차기 교육과정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8].

2.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에 관한 선행 연구

현재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은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기 보다는 교육과정 질 관리, 컨설팅, 장학, 교육과정 평가 등의 개념들과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모니터링은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질 관리의 개념, 그리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개발 시의 활용이라는 환류성,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질 관리의 개념에는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컨설팅과 장학,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이 포함될 것이며, 환류성이라는 개념에는 교육과정 수준과 양의 적합성에 대한 점검 등을 기반으로 질 관리 결과를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과정 지원의 일부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외국의 교육과정 적용 국제 비교 연구에서 소경희 등(2011)은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의 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적용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가교육과정의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고 하겠다[9].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질 관리(quality

control)에 중점을 두고, 현지 국가 출장 및 면담조사를 통해 일본,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4개국의 교육과정 질 관리 실태를 파악한 박순경 등(2001)의 연구에서는, 파악한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가 약하고, 오래전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최근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쟁점에 대해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10]. 유럽과 미주 및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미국,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의 국가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6]의 주요 내용은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총론 및 각론 수준의 문서 체제와 내용 제시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시 모니터링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국가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모니터링 관련 국제 비교 연구로서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사례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 주, 영국의 학교 사례를 통해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11], 모니터링 주체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준비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 연구들은 연구가 진행될 당시의 교육과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 추출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6-8][12][13], 역시 모니터링의 주체와 시기 방법이나 방식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적용에 초점이 있어, 모니터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 모니터링 관련 국제 비교 연구 혹은 국내 연구들은 국가 교육과정 지원이나 쟁점 사항 소개 및 학교 등 한정적인 국면에서의 모니터링에 국한되거나, 문서 위주의 분석, 혹은 시기상 오래전 연구라는 한계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의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된 문제점에 기초해서 타

당한 국제 비교의 준거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준거에 따른 종합적 시사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과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진술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준거 혹은 준거 설정의 근거나 이유 등이 문제점을 기반으로 도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준거를 기반으로 하여 모니터링 연구를 한 연구들 역시 교육과정 질 관리 기관이나 학교 평가 방법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의 모니터링 준거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6][9][10].

III.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문헌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및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분석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사전 문헌 조사를 통하여 비교 대상 국가의 모니터링 체제를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면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 교육과정 체제, 모니터링 주체와 시기 및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었다.

2. 면담 조사

면담 대상은 국내외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 면담의 경우 교육과정 정책 담당자,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 교육과정 담당 부장 및 현장 교사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담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실태와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파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면담 결과는 해외 사례 수집을 위한 준거 설정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국내 면담은 2015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모두 11회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 방문을 통한 면담으로, 조사 시기는 역시 2015년 3월과 7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이 면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대상 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모니터링에 대한 문

헌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국가의 국가 교육과정 기본 형태와 추구하는 방향 등은 잘 나타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실태나 당면한 문제점, 개선에 대한 요구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여, 국가 교육과정 정책 담당자와 현장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인식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면담 대상은 호주의 경우,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 1인, 호주 교육과정평가원(ACARA) 담당자 2인,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 5인을 면담하였고, 싱가포르의 경우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 연구관 2인,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 7명을 면담하였다. 면담의 방법은 해당 기관이나 학교를 방문하고 관련 인사들과 대략 2시간 정도의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대화의 내용은 녹음 및 노트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분석과 성찰의 자료로 남겨졌다. 분석은 앞서 제시했던 국내 면담으로부터 도출된 준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국가별로 체제나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출된 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즉, 국제 비교는 모든 준거 항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특별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을만한 항목들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IV.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와 문제점 분석

1.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연구·개발, 교육과정 고시, 단위학교 적용이라는 일련의 방식, 즉 RDD (Research, Development, Diffusion)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주로 국가에서 학교 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나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마다 교육과정 모니터링 계획도 국가 수준 및 교육청 수준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고시되어

실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급·전파하고, 교육과정 적용을 지원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진행되고 있다. 이중 모니터링 계획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14].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지원 계획 중 모니터링 관련 부분

구분	교육과정 모니터링 내용
국가 수준	·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실시 · 교육과정 연구 선도학교 운영 ·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 개발보급
교육청 수준	·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연구 선도학교 운영 · 질관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실시

2.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문제점

본 절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 대학의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의 시기와 방식, 대상과 주체,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1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시기와 방식

먼저 모니터링의 시기와 관련하여, 기존 교육과정의 적용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는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7]. 시기상으로 볼 때, 기존 교육과정의 장단점 파악과 질 관리 기간이 없이 차기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3까지 적용한 이후 차기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경우라도, 개정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주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모니터링이 실행되는 시기와 기간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난 다음 수정 고시되기

이전까지의 1년여의 실험학교나 연구학교 운영, 그리고 수정 고시되고 난 다음 1년여의 연구학교 운영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한 실정이다[7].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방식은 주로 성취도 평가나 학교 평가 결과에 따른 문서나 설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실제 수업을 통한 교육과정 실행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생의 문제 인식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에 참여한 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변화는 관심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역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방식에서 강조하는 수행평가의 서술식 혹은 논술식 평가에서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착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설문 혹은 문서를 통하여 밝히려는 모니터링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다.

2.2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주체와 대상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주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수직적 모니터링 기제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7][13]. 교육부 혹은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수준에서의 모니터링, 즉 상부 기관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평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에서 모니터링은 감독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상부기관의 감독관이 수업 참관을 하면 교사는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토로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부로부터의 모니터링은 여전히 평가의 일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실제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인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이 제기된다[15]. 즉,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교육 전문직과 학교 관리직 및 학부모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한 점은 현행 모니터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3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현행 교육과정 모니터링은 학교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 평가의 결과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7]. 교육과정 모니터링이 학교 평가라는 목적에 치우치게 되면, 개정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목적, 혹은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모니터링이 평가에 비중을 두게 되면, 각 학교급별, 교과별, 지역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발굴이 어렵게 되고, 개정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각 학교와 교과별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는 두 가지의 보고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중심의 연구학교나 실험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가 있으며, 두 번째로 연구기관 자체 보고서 혹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한 장학사는 “교육부 등 교육기관 중심의 연구학교 혹은 실험학교 운영 결과보고서는 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발표·공유되지만, 연구학교의 발표 자체가 중심이 되고 참가자들이 실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여 문제해결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인데, 문제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보고서 역시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교과별로 공유되거나 환류된 사례, 혹은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학교나 교실에 투입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7][13].

3. 해외 사례 조사 시사점을 위한 준거 도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준거를 교사와 교수,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가 등의 그룹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개인별 면담 결과보다 그룹 면담을 활용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적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구조 자체와 함께 내실화를 위한 노력 즉 모니터링 운영 측면에 더욱 주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구조 및 체제가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문제는 구조 (framework)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구조가 실제로 구동하도록 하는 운영 측면의 ‘내실화’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교육과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일련의 모니터링 체제 즉 국가차원과 교육청 차원 그리고 단위학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및 교육청 수준에서 특히 교육과정 개정 초기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는 교육청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개정 초기 모니터링은 중간 점검과의 연계성 등 시기적인 면에서도 종합적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의 모니터링 운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모니터링 과정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주체와 대상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들에서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주체들과 대상간의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상호간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과정 모니터링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운영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외 사례에서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모니터링은 대체로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및 교육부로 가는 상향식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사소통 활성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도출한 해외 사례 시사점 도출의 준거를 기술하였고, 이 준거에 따라 호주와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와 운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와 운영은 교육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먼저 간략하게 개관한다.

V. 해외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와 운영

1. 호주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분석

1.1 호주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관

호주는 6개의 주(State)와 2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공교육은 취학 전의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1~6학년), 중등학교(7~10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후 대학 입학준비를 위한 칼리지(11~12학년)에 진학하거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 중에서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공립학교, 가톨릭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등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호주 국가 교육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9][15].

기존의 호주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은 주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1990년대 전후부터 통일된 교육과정 체제를 지향하여, 2008년 ‘멜버른 선언’ 이후 본격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작업은 2009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호주 교육과정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다[17].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은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과 교육과정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별로 순차 개발하여 고시하며, 실행하는 시기는 각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18]. 본 연구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NSW 주의 경우, 개발된 호주 교육과정을 기존의 NSW 주의 교육과정과 비교·검토하며 교수요목(syllabuses)의 형태로 재개발하거나 수정 보완한 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NSW 교육위원회(Board of Studies Teaching & Educational Standards, BOSTE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K-12학년의 교육과정, 평가 및 교수·학습, 성취기준 개발, 단위학교에서의 적용 지원, 실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총괄한다[19].

1.2 호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1.2.1 보급·전파 단계의 모니터링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주 교육부는 연방정부에서 개발한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실러버스(주 교육과정)를 다시 개발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방문한 NSW 주의 경우 주 교육위원회(Board of Studies, Teaching and Educational Standards NSW, BOSTES)에서 실러버스를 개발하고, 웹사이트 등에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호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전 과정과 결과를 웹사이트에 탑재하여 교사들에게 공개한다.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주 구성원 등 누구나 개정 과정 중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개발과정에서는 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수정한다. 교사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다. 또한 자신들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개발 주체들도 그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가 공지되고 개정 전의 교육과정과의 수준 비교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사에게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과정 주체로서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자발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호주에서 주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보급하고 전파하는 시기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특별하게 홍보 혹은 안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개적 공유를 통하여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1.2.2 적용 단계의 모니터링 체제

호주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호주 교육과정평가원(ACARA)에 의해서이다. 이 기관은 해마다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더 상세한 평가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 교육부나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호주에서의 모니터링은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한 교사들의 피드백이나 질문, e-mail이나 웹 토의 등 매체를 통한 논의, 각종 연구 보고서나 연구 자료, NAPLAN (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과 PISA 결과 분석 자료, 각 주의 의견들을 토대로 모니터링 결과가 만들어진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 및 교육장관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전달 방법, 교과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방안을 마련한다. 또 다른 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으로는 NAPLAN 결과 분석도 활용하고 있다. 즉, 시험 결과 성적 향상이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분류하고, 다양한 변인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차이를 야기한 원인과 처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주차원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교육감독관의 학교 방문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수업 자료, 학생들의 수행 자료, 평가 자료 등을 살펴 보면서 교육과정 실행의 실태를 파악하는 장학으로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감독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다. 모니터링의 주체와 시기도 안정적이며 5년마다 학교의 교장, 다른 학교의 교장 그리고 장학관(director)이 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는 교장이 교육과정 적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물, 즉 학생들의 수업 과정과 평가 결과 관찰 내용 등에 대하여 교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특히 교사들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중 약 3주마다 1회 정도 전 직원이 만나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의논한다. 면담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이러한 시간이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 실행에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방식의 모니터링은 내가 담당한 교과목 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성 차원에서도 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단위학교의 모니터링 과정과 결과는 주 교육부로 전달이 되고, 주교육부에서는 교육감독관, 학교장단, 학교장의 모니터링 리포트와 매년 각 매체 및 회의, 협의회 자료를 종합하여 주 교육과정의 운영 상황 및 효과에 대해 점검한다. 단위학교와 주교육부의 모니터링 결과는 다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ACARA에 전달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보고들은 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주의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분석

2.1 싱가포르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관

싱가포르 교육제도는 10년의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하며, 6년의 초등 의무 교육, 4년의 중학교 교육, 2(3)년의 고등학교 교육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4년이 경과하면 시험을 거쳐 분반을 하여 중등학교로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조기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초등졸업 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의 결과에

따라 중학교 특별과정(special course), 보통학습과정(normal academic course), 보통기술과정(normal technical course)에 배치된다. 각 과정의 교육과정이나 수준도 달라, 각각 다른 종류의 시험을 치른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종합기술전문학교(Polytechnics)로 진학한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이나 학교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개정 주기가 각 교과별로 정해져 있어 대체로 6년 마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의 방향은 과거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특징인 효율성과 능력 중심주의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차츰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2.2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2.2.1 보급·전파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곧바로 학교로 전파된다. 따라서 전파 단계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급이나 전파 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은 교사 연수 혹은 장학 컨설팅의 과정 속에 포함되어 진행된다.

2.2.2 교육과정 적용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체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시기는 교육과정 개정 주기의 안정성과 관계가 깊다.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검토 사이클(curriculum review cycle) 주기는 각 교과별 개정 사이클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약 1-2년 시기에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지고, 중간 시점 즉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 3-4년 시점에 중간 검토(Mid-term review process)가 이루어져 개정 및 모니터링 주기가 안정적이다.

싱가포르 개정 교육과정 모니터링은 교과별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 혹은 과학 등의 전문가, 교사, 연구원,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검토위원회(Curriculum Review Committee)를 구성하고, 수업계획부터 활동,

학생과 교육과정 내용의 수준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이 강화된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초등교육 검토위원회(Primary Education Review and Implementation Committee)와 중등교육 검토위원회(Secondary Education Review and Implementation Committee)가 주관하며 이들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조직한다. 검토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교장 등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학교 환경적인 면까지 총체적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모니터링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장학의 방향은 학교 내 장학이 중심이 되나, 교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학교군 장학이나 교육부 장학도 이루어진다. 학교 내 장학은 학교 교장, 부장 교사(HoD) 및 동료교사가 주체가 되며 학교군 장학에서의 모니터링 주체는 학교군의 교육감(cluster superintendent)이 학교군 내의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하며, 교육부 장학은 교사들의 요청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여 주로 새로운 교육과정 실행에 어려운 점에 대한 장학 지원을 한다. 학교 자체 모니터링의 범주에는 학업 결과 등의 결과적인 면과 학교 환경이나 교사 구성, 자료 준비와 활용 등의 과정적인 면을 함께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국 싱가포르의 장학의 주체는 교사라는 인식과 함께 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로 연결되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요인이 된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방식은 면담(focus group interview)과 토론(dialogue sessions) 중심이며 개별 및 그룹 면담, 교차 면담(cross-section of stake-holders) 등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그룹 토의, 포커스 그룹 토의, 전화 토의, 포럼, e-mail을 포함한 서신 등을 통하여 연간 약 850명으로부터 다양하고 꾸준한 피드백을 교환하게 된다. 교육과정 검토 과정에 있어 영어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그룹 대상별로 공통 혹은 그룹별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 및 종합토의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대인관계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이 각 단위별 소재 및 교수학습에서 구현될 때 협력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및 잘 이루어지는 사

레, 교육과정 재구성의 범위와 학교 자율권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토의된다. 토의는 면대면 방식을 포함하여 언제나 교사가 필요할 때 질의와 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이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 목적이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탐색이라는 점에서는 보편적이지만,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의도된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a)과 실천되는 교육과정(implemented curricula) 그리고 실천의 결과로서의 교육과정(attained curricula)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최소화하고,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의 환류를 위한 주요한 실천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모니터링 결과 활용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 즉,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검토 결과는 보고서(PERI 보고서, SERI 보고서 등)은 학교와 공유되고, 학교 내 및 학교군 연수나 워크숍에서 교사 연수용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및 차기 교육과정 개정 자료로 활용된다. 피드백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영어 교과 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 진술을 예로 들어 보면, 협력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을 위한 교실 공간 구성의 효율성, 학생들의 말하기 발표에 대한 좀 더 건설적이면서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 필요, 공용어인 영어 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과 열망을 높일 방안 강구, 학부모들에게 수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좀 더 제공 필요)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교육과정 검토 보고서로 발간되어 웹사이트에 탑재되며, 교사나 학교 회원 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 내 장학과 학교 군 장학의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연수 자료로 활용되고, 차기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의 교육과정기획개발과(Curriculum Planning Development Division)와 평가위원회(Singapore Examination and Assessment Board: SEAB)에서 활용한다.

VI. 결론 및 제언

사회, 교과, 학습자가 변화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요구는 변하고 이는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증대시

킨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문서상의 개선 못지않게 그것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와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2007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문제점을 문헌 연구와 교사 면담 그리고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례 연구의 시사점 도출의 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준거에 기초하여 싱가포르와 호주 국가를 방문하고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와 운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국가 공히 교육과정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개방적 소통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서부터의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교육과정 개발의 전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 개발에 누구나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피드백을 하는 소통의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와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개방성은 교육과정 개발자와 실행자인 교사, 그리고 교육과정의 실행을 지원하는 주체 간의 공개적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정의 공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개발 단계의 공개적 모니터링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다분히 폐쇄적이라고 지적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현실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을 단위 학교를 평가하는 데 두지 않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학교 서열 매기기로 인식하게 되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의 목적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이다. 이는 모니터링 본

언의 역할이 선 순환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모니터링이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장치가 아니라 현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니터링 대상과 방식이 종합성을 띄고 있다. 먼저, 모니터링을 위한 면담 대상이 교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과정 모니터링 중 검토의 관점에서 볼 때, 검토위원회가 면담하는 대상은 학부모, 교사, 교장 등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방식 역시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반을 둔다. 개정 교육과정의 강점과 약점 뿐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환경적인 면까지 설문이나 문서가 아닌 면담과 토론, 교차 면담, 전화 토의, 포럼, e-mail을 포함한 서신 등 관련자들의 실제적 의견을 모니터링 한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개정 주기 덕분에 개정 전후에 걸쳐 종합적 검토와 중간 검토가 초등과 중등의 각 과목별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내실화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체제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와 싱가포르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역시 그 체제(framework)의 차이보다는 운영의 내실화 비교가 필요하다. 호주나 싱가포르의 모니터링 운영은 그 목적을 살리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마인드 형성 혹은 동기 부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호주나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에 교사가 참여하여 주체성을 높이고, 상향식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구체적 교육과정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구안하고, 모니터링 활동들의 결과는 교육부의 교육과정기획과가 주관이 되어 교사 연수나 차기 교육과정에 환류하는 등의 일련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운영 방식이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검토 결과의 연수 활용이나 차기 교육과정 개정 환류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보급 전파, 적용 지원 단계까지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제는 의사소통 방식, 개방성, 종합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Fullan, M.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NY: Teachers College Press, 2001
- [2] 조덕주,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의 연계자와 변화지원자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17권, 제2호, pp.191-207, 1999.
- [3] 조덕주, “교육과정 적용과 지원 유형과의 관계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20권, 제2호, pp.307-327, 2002.
- [4] 김봉규,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강원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 서지영, 김정호, 김덕근, 권유진, 장근주, 김정호, *교과서 정책의 국제 동향과 미래 전망*,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1-68, 2011.
- [6] 허경철, 이광우, 박순경, 강창동,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김희규,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III):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적용 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2-1, 2005.
- [7] 민용성, 최승현, 오은순, 양정실, 김현미, 한혜정, 박기화, 성기련, 정은영, 최의창, 최지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1, 2012.
- [8] 이미숙, 민용성, 조성기, 조덕주, 이낙중, 김현철,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V):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적용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6-1, 2007.
- [9]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및 주요 특징,” *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2호, pp.51-73, 2011.
- [10] 박순경, 허경철, 이화진, 소경희,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요구 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1-5-1, 2001.
- [11] 홍원표, 이근호,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

적용 사례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2, 2010.

- [12] 강창동, 이미숙, 김희규, 성병창, 최옥, 전제상,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 지원 연구(IV):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지원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6-2-1, 2006.
- [13] 이미경, 민용성, 서영진, 변희현, 이혜원, 진재관, 양윤정, 김택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4-1, 2013.
- [14]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 [15] 이미숙, 정구향, 이근호, 박창언,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보고 RRC 201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 [16] 백경선, 이영아, 이동엽, 김사훈, 김대석,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16, 2013.
- [17] ACARA,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version 6)*,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Report, 2012.
- [18] ACARA, *Australian Curriculum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Presentation Paper*, 2015.
- [19] BOSTES, *Syllabus development handbook (updated November 2014)*. the Board of Studies, Teaching and Educational Standards NSW Report, 2014.

저 자 소 개

이 근 호(Keunho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알버타 대학교 중등교육과 졸업(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관심분야> : 교육과정 개발, 교사교육, 질적연구방법론(현상학)

이 병 천(Byeongcheon Lee)

정회원



- 2004년 3월 : 알버타 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박사)
- 2006년 4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2014년 1월 ~ 현재 : 한국영상영어교육학회 부회장
- <관심분야> : 교사연수, 교육과정, 영어평가, 교재개발

가 은 아(Euna Ka)

정회원



- 201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관심분야> : 국어교육, 작문교육, 교육과정, 국어과 교수·학습

이 주 연(Jooyoun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박사)
- 2012년 8월 ~ 2014년 7월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실행, 질적 연구